

2019년도 일치·교육국 정책협의회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향하여”

2019년 2월 21일(목)~22일(금) | 유성 계룡스파텔

목 차

- 05 총무 인사말씀
- 07 일정표
- 08 개회예배
- 10 폐회
- 11 발제 및 토론
 - 13 주제 1 -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서로의 이해나누기
 - 21 주제 2 -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서로의 기대 나누기
 - 33 주제 3 -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우리의 과제
- 37 참고자료

총·무·인·사

본회는 67회기를 맞아 교회일치 정신이 교회간 거룩한 친교, 신학연구 및 교류, 에큐메니칼 교육으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과제를 감당하고자 사무국을 재편하여 교회일치위, 신학위, 교육위 3개 위원회로 구성되는 일치·교육국을 새로이 만들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 상황은 선교를 목적하는 교회에게, 그리고 교회의 일치를 선교적 사명으로 고백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에게 새로운 표현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늘 변화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대한 포괄적 대답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 다양함을 제대로 담아낼 수 있는 표현의 방법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시대적 상황은 교회가 앞으로 다양한 요소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똑같은 모습의 교회를 양산해 내는데 더 익숙해 있습니다.

처음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를 제자들이 만났고, 그 만남을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하며 다른 이들과 만남으로써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면 교회는 다양한 삶의 방식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화두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이를 실천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것입니다. 옛 시대의 율법과 조문이 지니는 한계를 넘어서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새 계명의 실천과제는 무엇인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서 그 사랑의 범주를 ‘이웃 사랑’을 넘어 ‘원수사랑’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에큐메니칼 운동이 추구해야 할 정행(orthopraxis)의 영성의 길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표현을 새롭게 해야 함

니다.

그러기 위해 오늘 한국교회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 오늘 정책협의회가 이 같은 물음들에 대해 ‘지금 여기’에서의 대답을 함께 찾아가는 성찰의 자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2019년 2월 21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이홍정

일·정·표

시 간	구 분	진 행
21일 (목)	14:30 ~ 15:00	등록
	15:00 ~ 15:30	개회예배 사회: 김명실 목사 / 설교: 남재영 목사 기도: 백승훈 청년 / 축도: 이광섭 목사
	15:30 ~ 16:30	코이노니아 진행: 강석훈 목사 (일치·교육국장)
	16:30 ~ 17:00	휴식
	17:00 ~ 18:30	발제1/토론1 주제: 교회일치운동에 대한 서로의 이해나누기 진행: 박찬웅 목사 (신학위원회 위원장) 발제: 이영재 목사 (전북NCC 회장)
	18:30 ~ 19:30	저녁식사
	19:30 ~ 21:00	발제2/토론2 주제: 교회일치운동에 대한 서로의 기대 나누기 진행: 황선엽 사관 (교회일치위원회 위원장) 발제: 홍인식 목사 (신학위원)
	21:00 ~	휴식
22일 (금)	08:00 ~ 09:00	아침식사
	09:00 ~ 10:30	과제도출의 시간 주제: 에큐메니칼운동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우리의 과제 진행: 김영철 목사 (교육위원회 위원장)
	10:30 ~ 11:00	폐회예배

2019 NCCK 일차·교육국 정책협의회 개회예배

• 인도: 김명실 목사 (신학위원)

예배로의 부름 | 인도자

야훼여,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소서. 당신의 구원을 우리에게 내리소서. 나는 듣나니, 야훼께서 무슨 말씀 하셨는가? 하느님께서 하신 말씀 그것은 분명히 평화, 당신 백성과 당신을 따르는 자들, 또다시 망령된 데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들에게 주시는 평화로다. 당신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구원이 정녕 가까우니 그의 영광이 우리 땅에 깃드시리라. 사랑과 진실이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리라. 땅에서는 진실이 돌아 나오고 하늘에선 정의가 굽어보리라. 야훼께서 복을 내리시리니 우리 땅이 열매를 맺어 주리라. 정의가 당신 앞을 걸어 나가고, 평화가 그 발자취를 따라 가리라. (시편 85편 7~13절)

찬 송 | 10장 (전능왕 오셔서) | 다같이

1.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2. 강성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3.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앞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집소서
4.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뵈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기 도 | 백승훈 청년 (교회일치위원)

성경봉독 | 빌립보서 2장 1~5절 | 인도자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힘을 얻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위안을 받습니까? 성령의 감화로 서로 사귀는 일이 있습니까? 서로 애정을 나누며 동정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나누며 마음을 합쳐서 하나가 되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의 기쁨을 완전하게 해 주십시오. 무슨 일이나 이기적인 야심이나 허영을 버리고 다만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십시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니셨던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간직하십시오.”

설 교 |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 남재영 목사 (본회 실행위원)

함께 드리는 에큐메니칼 기도 | 다같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몸 된 교회의 건강한 지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몸으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다양성 안에 일치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다름이 갈등과 대립으로 맞서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다양성 안에 일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가게 하소서.

생명을 보듬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이 중요하듯 모든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게 하시고
생명의 경이로움을 통해 생명을 살리고 보듬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불의와 부정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아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나가게 하소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하나님!

평화를 몸으로 사셨던 주님의 삶을 따라 평화를 지키는 사도들이 되게 하시고
평화의 가치를 통해 온전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약한 이들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

연약한 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실패한 자들에게 희망을 주며
가난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어 그들과 함께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약한 이들을 위해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임을 통해 에큐메니칼 운동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로 삼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몸이 하나이듯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찬 송 | 582장 (어둔 밤 마음에 잠겨) | 다같이

1. 어둔 밤 마음에 잠겨 역사에 어둠 질었을 때에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빛 속에 새롭다 이빛 삶속에 얽혀 이 땅에 생명 탑 놓아 간다
2. 옥토에 뿌리는 깊어 하늘로 줄기가 치솟을 때 가지 잎 억만을 헤어 그 열매 만민이 산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일꾼을 부른다 하늘 씨앗이 되어 역사에 생명을 이어가리
3. 맑은 샘 줄기용 솟아 거치른 땅에 흘러 적실 때 기름진 푸른 별판이 눈앞에 활짝 트인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 새 하늘 새 땅아 길이 꺼지지 않는 인류의 햇불 되어 타거라

축 도 | 이광섭 목사 (본회 실행위원/교회일치위 부위원장)

광고와 안내 | 강석훈 목사 (일치·교육국장)

기념 촬영 | 다같이

2019 NCCK 일차·교육국 정책협의회 폐회

• 인도:

찬 송 |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 다같이

1.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2.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3.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후렴)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둔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폐회기도 |

발제 및 토론

- 진행 : 박찬웅 목사 (신학위원회 위원장)
황선엽 사관 (교회일치위원회 위원장)
- 강연 : 이영재 목사 (전북NCC 회장)
홍인식 목사 (신학위원회 위원)

에큐메니칼 운동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새로운 성찰

이영재 목사 (본회 실행위원/전북NCC 회장)

한국에서 교회의 일치연합운동은 일제강점기 초기인 1924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억압되었던 교회연합 운동이 해방을 맞아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새 출발을 하였습니다. 세계교회협의회가 1910년 에딘버러에서 최초로 모인 것에 비하면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은 비교적 이른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서구에서 에큐메니즘은 애초부터 기독교의 다양한 교파들과 교단들 사이에 대화를 통해 일치를 모색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서로의 차이점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고 서로를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 함께 협력하려는 데 그 목적과 의의가 있었습니다. 초기에는 YMCA와 YWCA와 같은 기독교 사회단체들이 교회일치운동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일치운동은 한국 장로교의 분열이라는 불의 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와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이 에큐메니즘을 반대하는 보수세력으로부터 정죄를 받고 교단의 분열이라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큐메니즘에 반대하는 해외의 교회들이 있어서 그 영향으로 한국교회의 침례교와 성결교와 같은 교단들은 NCCCK에 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에큐메니칼 운동은 전지구적 차원으로 확대되어 WCC의 가맹 교회가 종교의 문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경제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책임지고 참여하는 과제로까지 그 사역의 영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기독교라는 자신의 정체성 문제뿐만 아니라 대 사회적 연관성의 문제까지도 안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속에 사회적 연관성의 문제도 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과정과 상황을 살펴보면서 앞으로 한국이라는 현실 속에서 교회협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짚어 보는 것은 미래의 참된 교회의 개혁과 하나님나라의 선교를 위하여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군사독재의 시련을 극복한 NCCK

군사독재 시절에 한국교회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말살되던 당시 NCCK는 산업선교와 인권위원회 활동과 기독교사회문제연구소의 문서활동, 그리고 금요기도회 등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민주주의 운동을 적극 전개하였습니다. 유신정권과 군사독재에 대한 반대운동과 민주주의를 위한 민민운동에 참여하는 동안 NCCK는 한국기독교를 대표하여 민주인사들과 함께 탄압을 받으면서 함께 저항하였습니다. 해외에서 NCCK는 WCC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전세계의 범위에서 국제연대의 틀도 확대하였습니다. 국내에서는 독재정권의 박해를 피하여 교회로 밀려 들어오는 활동가들을 교회가 품어낼 수 있도록 NCCK가 지교회들을 돕고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로써 NCCK에 대한 일반의 민주화 기대치 뿐만 아니라 세계교회 안에서의 위상도 매우 확고하게 세워졌습니다.

문민정부 시절의 NCCK

군사독재체제가 종식되고 국민의 정부와 문민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묘하게도 NCCK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민주화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교회의 역할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줄어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NCCK는 민주화를 위한 사회적 실천을 재고하기 보다는 내부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일에 더 힘을 기울였습니다. 회원교단들을 확충하는 등 조직을 확대하고 강화하였습니다. 국제연대에서 주어지던 후원금이 줄어들면서 스스로 자립해야 하는 어려운 재정적 과제도 조직확대와 강화에 명분을 제공하였습니다. 정체성을 확인하는 일과 사회적 연관성을 강화하는 일을 잘 조화시키는 일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NCCK가 민주화와 평화와 통일과 민중이라는 큰 과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단협의체라는 기구운동의 한계성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사무국이 지역교회의 현장과 역사적 현상의 요구를 잘 수렴하여야 했지만, 지역교회의 회원들의 신학과 사회적 역사적 의식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따라주지 못하는 현실은 많은 어려움을 낳았습니다. NCCK가 안고 있는 기구적 한계성은 오늘날까지 에큐메니칼 진영이 성찰하고 극복하려고 시도해야 할 지난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수대연합 운동에 대한 NCCK의 대응 과제

군사독재는 종식되었지만 민주화의 시기에 한기총과 같은 보수연합 단체도 생겨

났습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NCKK의 민주화운동에 대항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하였습니다. 이들은 WCC와 NCKK를 용공좌경 단체라고 매도하던 군사독재의 연장선에 서 있습니다. 각 나라의 종교와 문화를 존중하려는 WCC의 노력에 대하여 이들은 “다원주의”라고 매도하면서 종교혼합주의라고 정죄합니다. 카톨릭교회와의 대화를 시도하는 <신앙과직제협의회>의 신학적 노력도 혼합주의라고 매도합니다. 이들은 NCKK를 거부하는 비회원교단들을 포섭하여 보수대연합의 틀을 구성하려고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NCKK가 아니라 기독교연합이라는 형태로 “한기협”이라는 단체를 구성하여 보수연합의 틀 속으로 끌고 들어가려고 시도합니다.

NCKK는 이들 보수진영에 대한 신학적 논점을 분명히 제시하고 이들의 신학적 문제점을 분명히 하는 과제도 떠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NCKK는 보수진영과 대화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분명한 기독교의 참다운 본질을 일반사회에 널리 각인하고 홍보하는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기총 내지 한기연 등이 태극기부대에 참여하고 박근혜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면서 정권탈환 운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교회에서는 이들의 조직적 활동이 일반 교우들에게 영향을 끼쳐서 목회 현장에서 매우 불편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일반인과 성도들이 이들의 연합활동에 무비판적으로 경도되어 가고 있어 이에 대한 에큐메니즘의 대안이 긴급하게 요청되는 실정입니다. NCKK가 잘못된 보수진영의 압박을 이겨내도록 전국 단위로 지역교회와 연대하여 함께 논의하는 연대의 틀을 만들어 내는 일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교단협의체로서의 NCKK가 안고 있는 한계와 문제점

NCKK가 여러 교단들이 회원단체로 가입하여 협의체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뚜렷한 한계를 안고 있습니다. 사무국이나 위원회의 활동가들은 긴급한 문제에 빠르게 대처해야 하며 세계적 수준의 신학과 정책에 부흥해야 하는 반면, 지역교회의 목회자나 교인들의 의식은 그 실천적 요구에 따라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개교회주의에 입각한 교회성장주의가 팽배한 현실입니다. 목회자들은 모든 열정을 교회의 양적 성장에 쏟아 붓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교회에서 NCKK의 각종 위원회들에 파송되는 위원들은 성령이 요구하시는 시대적 요구와 에큐메니즘 신학과 의식에 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의식과 실천 역량이 재고되지 않는 채 위원으로 참여하는 분들 가운데에서는 교단 편향을 보이거나 심지어는 자리다툼에 열중하는 사례가 나타나 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할 활동가들을 곤혹스럽게 하는 사례도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NCKK는 회원교단과 긴밀

히 협의하여 에큐메니즘을 재고하고 훈련된 위원들을 파송할 수 있도록 작업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단시간에 해결될 일이 아니라 장기간의 꾸준한 노력이 있어야 하는 힘겨운 과제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당면한 과제에 부응해야 하는 실무자에게 닥치는 유혹이 있습니다. 일을 할 준비나 능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위원들이 결정한 사안을 집행하는 일은 너무나 힘겹기 때문에, 실무자들의 코드에 맞는 소수의 준비된 위원들 하고만 작업을 하려는 유혹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일하기 편할지는 모르겠지만 지역교회의 현장과 생기는 괴리감은 더욱 깊어지고 지역교회를 견인하는 활동가 목회자들의 수효는 점점 감소하는 악순환을 겪게 됩니다. 활동가는 함께 일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을 부단히 개발하고 훈련해 내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도 활동가는 인내하면서 지역교회에서 파송되는 인재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부단히 개발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위 대형교회를 지향하는 목회자들은 급기야 기업형 교회를 만들어냄으로써 사회적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또한 교회세습이라는 악습을 만들어 세간의 비난에 교회를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NCKC는 이들에 대한 명백한 신학적 입장을 제시해야 하는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는 NCKC의 입장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NCKC는 당면한 재정적 요구에 직면하여 후원금을 많이 낼 수 있는 대교회들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형교회의 목회자들을 앞장 세워 일하여야 하는 딱한 사정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NCKC가 사회적 쟁점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응답하는 일에 바르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회원단체 교단들 중에서도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회원교단과도 긴밀하게 협의하여야 하는 사안이 생길 경우에는 진보진영의 입장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한계점도 노정하고 있습니다. NCKC는 에큐메니즘에 참여할 때 지녀야 할 신학과 실천의 경계선을 더욱 분명하게 천명하여야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NCKC는 우선 노동자와 농민과 도시빈민 등 우리사회에서 소외된 사회적 약자의 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이 과제는 교회 안에 있는 가진 자들과의 갈등을 낳게 된다는 점을 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건과 사고가 터질 때마다 NCKC는 시의도 적절하게 기독교의 입장을 바르고도 뚜렷하게 천명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사회에 기독교에 대한 바른 인식을 재고하여 역사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전도의 길도 활짝 열어 나가는 일에 NCCK가 일조할 수 있고 이로써 NCCK가 기독교 대중에게 가장 신뢰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보수진영이 성소수자 문제를 들고 나와서 WCC와 NCCK를 공격할 때 이에 대해 민활하게 대처하여야 했습니다. 홍보책자를 두세 권 번역하여 발간하는 것으로는 태부족입니다. 또한 이들의 운동에 대꾸하지 말고 지나가면 진실은 자연스레 밝혀질 것이라는 소극적인 대응도 옳지 않습니다. 그 기간 동안 지역교회와 교우들이 당하는 피해는 엄청납니다. 에큐진영의 신학을 보다 활발하고도 분명하게 천명해야 할 것입니다. NCCK에 가맹 교단들의 지역교회들조차도 동성애자들을 비난하는 연대에 휩쓸려가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요즘에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혐오를 중단하자”는 사회운동이 일어나서 동성애자들을 혐오하고 큐어처제에 폭력을 휘두르는 교회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제주난민문제로 인해 불거진 사회문제에 대해서도 NCCK는 보다 분명한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적 수준에서 이들을 보살피는 지원운동을 천명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더구나 무슬림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하는 교회는 사회의 건강성을 좀 먹는 극우파의 잘못된 행동에 동조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기독교 내의 신앙의 차이를 서로 이해하는 일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들 사이에서도 대화를 이끌어내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긴요한 과제입니다.

부산 벅스코 WCC대회를 기점으로 한국교회의 전반적인 신앙인식의 수준을 한 층 끌어 올리는 계기를 제공하지 못한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르는 일에 너무 치중한 느낌이 있습니다. 세계대회를 통해서 지역교회들이 NCCK에 연대하고 에큐운동에 더욱 열성적으로 다가서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대회 이후에도 사정은 크게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목회자세습문제가 사회에서 문제가 될 때에도 NCCK는 분명하게 사안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는 지를 보다 분명하게 짚어내야 할 것입니다.

사무국의 관료주의 문제도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 NCCK의 사역에 각종 위원회 활동에 지역교회의 목회자와 평신도 대중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그들의 견해를 이끌어내고 수렴하려는 노력을 실무자들이 최선을 다해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지역교회 목회자들이 보여주는 비민주적 태도나 의식이 부족한 상황이 발견되면 활동가들은 그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바른 태도로 임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사무국이 비대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부지런히 떨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NCCK의 한계성을 극복하려는 지역교회의 자구적 노력

교단협의체의 정신과 정책방향이 지역교회의 목회 현장에까지 전달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일어난 운동이 지역NCC운동입니다. 지역NCC는 자생적 에큐메니칼 조직으로서 목회자 개인과 개교회와 평신도 개인의 자격으로 가입하여 활동하도록 초기부터 조직원칙을 세우고 있습니다. 더구나 큰 교회 중심의 운동이 아니라 작은 교회들이 대거 참여하여 기독교인 대중들의 의견을 수렴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기총과 같은 보수연합과 연합하여 지역에서 의식적으로 보수대연합을 추동하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는 방안을 다방면으로 마련하여 근본주의가 이 땅에서 극복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지역NCC와 NCCK 사이의 바른 관계를 지향하여

지역교회들이 교단별로 참여하고 있지만 교단을 통해서 NCCK의 에큐메니즘이 지역교회에 잘 전달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지역교회들이 지역NCC에 참여함으로써 좀더 활발하게 자기 현장에서 에큐메니즘의 신학을 실천하는 것이 최선책으로 보입니다. 이에 NCCK는 지역NCC가 각각의 현장에서 지역교회들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자료와 인적 자원을 최대한 공급해 주고 협동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보수대연합을 추동하는 자들이 지역의 면 단위에까지 활동가를 보내어 지역교회들을 보수근본주의 진영으로 몰아가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이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지역NCC는 지역까지 미치지 못하는 NCCK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함께 동역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에서 터져나오는 이슈들뿐만 아니라 평화와 통일, 그리고 민중민주의 과제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협력관계가 지속되어서 에큐진영이 폭넓게 형성되고 활성화되고 확대되어 마침내 이 땅에 생명 평화 정의를 세우는 교회로 개혁해야 할 것입니다.

지역교회들에는 해외선교의 붐을 타고 매우 보수적인 관점의 선교 정책과 방향이 널리 공유되고 있습니다. 서양교회들이 식민지 시대에 범했던 과오들이 아무런 비판적 성찰의 과정 없이 여과되지 않고 한국의 지역교회들에 그대로 실행되고 있습니다. 지역교회들이 올바르게 해외선교에도 영혼구원의 구령사업이 아니라 고난 받는 현장의 아픔과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올바른 성서적 선교의 정책과 방향이 확고히 수립되도록 NCCK와 지역NCC가 함께 연구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노력은 목회의 현장에서 매우 긴급하게 요청되는 사항입니다. 에큐메니즘의 목회적 적용을 위한 교단별 지역교회들의 연대를 통해 신학적 연구자료의 생산 및 제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지역교회의 목회자들이 대중적인 단위에서 에큐진영에 나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로써 NCCK가 교단협의체로서 안고 있는 기구중심의 운동이라는 한계를 현장중심의 축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입니다.

• MEMO

교회의 일치¹⁾ -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서로의 기대 나누기

홍인식 목사 (본회 신학위원, 순천중앙교회)

들어가면서

우리는 현재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아니 변화의 속도조차 감지할 수 없는 변화 자체의 시대에서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대의 변화를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러나 그 어떤 말로도 요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변화의 형태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오늘 우리 사회의 경제 사회 문화구조는 물론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의 형태를 송두리째 바꿔놓고 있다. 여기에 기독교도 예외 일수는 없을 것이다. 급변의 사회는 기독교를 어떤 형태로 변화시키고 있을까?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현상이 있다. 그것은 과학과 기술의 무한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 사이에 아이러니컬하게도 비이성적이며 초월적인 분야에 대한 관심을 고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인공지능 등 4차 산업 혁명으로 급변하고 있는 오늘의 사회를 특징짓는 여러 가지 성격중의 하나로 우리는 여러 가지 형태의 비이성의 모습을 가진 “성스러운 것으로의 돌아옴”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종교사회에서의 에큐메니칼 운동

오늘의 시대의 사람들은 다시 신과 영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다. Mardones 가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는 “새로운 종교부활”²⁾의 시대, 종교적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성스러운 것으로의 돌아옴’이 반드시 ‘그리스도교의

1) 본 소고는 2018년 9월 4일 개최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2018 정책협의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보충 강화한 글임을 밝힌다.

2) Jose Maria Mardones, A donde va la religion?: cristianismo y religiosidad en nuestro tiempo(어디로 가고 있는가?: 우리 시대의 기독교와 종교성), Santander: Sal Terrae, 1996, 7 쪽

성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세계종교에 있어서 그리스도교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는 새로운 영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통적인 종교들의 자리 매김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그리스도 교회들은 새로운 영성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견지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는 오늘의 시대에서 종교의 성행이 제도적인 종교 혹은 그리스도교가 지켜오고 있던 종교적 메카니즘 안에서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³⁾ 포스트모던적인 사람들은 신앙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는 하나 “옛 질서”에 속한 것으로 간주되는 제도적이고 전통적인 종교의 테두리 안에서의 신앙을 거부하고 있다.⁴⁾ 역사적인 종교들은 관료적이고 이미 실효성을 상실한 제도로 간주되어 지고 있다.⁵⁾

이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시대의 종교 현상의 특징을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신앙의 탈(脫)제도화이다. 둘째는 탈(脫)전통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탈(脫)기구화 현상이 그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 내에서 탈(脫)교회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는 하나 이제 더 이상 제도적 혹은 종교적 진리는 더 이상 전통이나 혹은 제도에 의해서 규정되어지지 않고 오직 주관적 경험에 의해서만 발견되어진다.

이러한 탈(脫)적 모습을 보이는 시대에서 더 이상 교회는 독단적인 모습으로 존재할 수 없다. 신학은 개 교회 혹은 개별적 교단과 교파의 신학으로 머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학은 개 교회 혹은 개 교단을 넘어서서 에큐메니칼 신학이 되어야 한다.

탈(脫)시대와 한국교회

한국 교회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한국에서의 2030 세대의 탈(脫)종교 현상은 종교 인구의 고령화를 급속하게 촉진할 것이며, 더 나아가 향후 10년, 20년 장기적인 종교 인구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교회

3). 책 7 쪽

4). Pablo Capanna, El mito de la Nueva Era:vino viejo en odres descartables,(새로운 시대의 신화: 일회용 용기에 들어 있는 옛포도주) Buenos Aires, Ediciones Paulinas, 1993, 12 쪽

5). Mariano Cobri 는 전통적인 종교에 대한 불신을 “종교없는 성스러움에 대한 체험” 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Mariano Corbi, Religion sin religion 종교없는 종교, Madrid PPC, 1998, 137 쪽

는 한국 사회에 좋은 일보다는 나쁜 측면에서 영향을 더 준다는 여론조사 내용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런 면에서 한국 개신교는 사회적으로 볼 때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 교회를 향한 비판의 내용을 보면, 교파분열이 많고, 사이버 종교성이 심각하고, 헌금의 강조와 재산다툼을 한다는 것이다. 개신교는 시대변화에 적응을 잘하여 세속적임을 보였고, 참 진리를 추구하기보다는 교세확장에 앞섰고, 종교의 본질보다는 세속적인 처세술을 가르쳤고, 지나치게 헌금을 강요하고, 믿지 않는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지도 않고, 지켜야 할 규율을 너무 엄격히 강조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타종교에 비하여 사회적 역할은 하지 못하고, 지도자 자질이 가장 뒤떨어지며 사회적으로 공신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이러한 지적은 오늘 한국 교회가 매우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 교회는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보여 지고 있고 겉으로 드러나고 있는 성공적인 모습에 안주하지 말고 오늘의 교회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진지하게 성찰해 보아야 할 것이다. 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고쳐나가야만 할 것이다

더욱이 한국의 경우 개신교는 수많은 분열과 교단간의 분쟁을 경험하면서 사회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그 뿐만 아니다. 기독교의 타종교에 대한 태도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을 더욱 더 강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독교가 미래시대에서도 그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를 보여야 하는 것일까?

그것을 나는 기독교의 본래의 모습인 교회 일치 운동으로서의 에큐메니칼적 태도에서 찾아보고자 한다. 교회 일치 운동으로서의 에큐메니칼적 교회 운동이 오늘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기독교로 하여금 그 존재의 정당성을 갖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다. 왜냐하면 교회 일치 운동으로서의 에큐메니칼 신학은 복음을 개인과 교회에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 세계를 아우르는 본래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도록 신학적 지평을 열어주기 때문이다.

교회의 일치 운동의 미래

교회 일치 운동과 목회현장의 현실

그러면 과연 오늘 한국 교회에서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은 목회 현장에서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일까? 탈종교시대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목회 현장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목회현장과 밀접한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를 질문

하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오늘의 한국의 목회현장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가?

먼저, 나는 목회현장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무지와 부재의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약 3년 전 순천에서 가장 오래되었으며(1907년 창립) 매우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순천중앙교회에 담임목사로 부임했다. 부임 당시에게 교인들에게 가장 논란이 되었던 주제중의 하나가 나의 에큐메니칼적 신학 성향이었다.

교인들은 순천중앙교회가 속해 있는 교단이 WCC 가입교단임에도 불구하고 WCC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었고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 자체를 매우 부담스러워 하고 있었다. 교회 내에는 에큐메니칼에 대한 이해가 거의 전무했고 오히려 부정적인 이해만을 갖고 있었다. 어디에서도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는 찾아 볼 수 없었고 매우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정보들만 난무하고 있었다.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몰이해는 결국 이에 대한 반발로 이어져 가고 있었다. 이것이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목회현장이었다.

두 번째 현상은 지역 목회자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무관심이다. 지역 목회자들 역시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이해의 부족을 넘어서는 무관심은 매우 심각한 현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었다. 목회자들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무관심은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목회 행위와 활동과 에큐메니칼 운동의 연관성을 찾지 못한 데에서 기인하고 있다.

지역 현장의 목회자들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목회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것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주제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목회실천으로 이어지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그의 인사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공동체로서 선교적 교회는 ‘메시아적 삶의 양식’을 가진 교회라고 말하면서 그러한 교회의 정체성으로 타자를 위한 침묵적 고난과 자기희생을 통하여 약함의 자리로 초대되는 교회의 영성, “십자가 아래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교회”의 삶의 양식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또한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화두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말씀이 지시하는 것처럼 이 시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이를 실천하는 에큐메니칼 운동은 무엇인가를 질문하고 있다.

바로 여기에 목회현장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고민이 있다. 과연 이러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주제들이 구체적으로 목회현장에서 어떻게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설교에서, 심방에서, 교회의 선교에서, 지역 사회와의 관계에서 그리고 교회학교와 교인들의 신앙교육의 현장에서 어떻게 실행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확신의 부재는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지역 목회자의 무관심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몇몇 소수의 지역 목회자들만이 이론적인 측면에서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접근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오늘 목회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직면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이다.

세 번째 에큐메니칼 운동의 언어와 목회현장의 언어의 괴리현상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순천중앙교회에 부임한 이후 교인들에게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하여 여러 번에 걸쳐 안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설교와 성경공부 혹은 평신도 신학마당을 통하여 부지런히 소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에 일반적인 교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한 언어로 들려지고 있다는 현상을 경험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언어를 지역목회 현장의 언어로 전환하는 것은 에큐메니칼 운동의 목회현장에서의 실천적 적응에 매우 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진다. 언어의 괴리를 극복함으로써 지역 현장 목회자들을 비롯한 교인들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정도는 높아져 갈 것이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역교회 목회 현장에서 지속가능성

나는 위에서 급변하는 오늘의 시대 특히 탈 교회 시대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이 갖는 중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기독교회의 존재의 기반이 되는 에큐메니칼 운

6)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동이 목회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기독교회의 미래와 직결된다. 따라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강화와 지속 가능성의 모색은 지역교회와 목회 현장에서 어떻게 에큐메니칼 운동이 이해되어지고 또 그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느냐의 문제와 연결된다.

이홍정 총무는 “전환시대의 한국기독교 교회협의회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발제에서 다음과 같은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그는 에큐메니칼 정체성과 협의회적 과정 및 지속 가능성의 강화를 위한 방안으로

1. 회원 교단 및 기관들 사이에 에큐메니칼 친교의 강화
2. 상호 배움을 통한 성장과 성숙, 협력과 연대의 길을 열어감으로서 제반 의사 결정과정에서 협의회적 성격의 강화
3. 풀뿌리 지역에큐메니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에큐메니칼 운동체로서의 내용과 조직의 재구성
4. 진보와 보수의 대표성을 표방하는 중앙기구들의 조직적 한계를 넘어선 지역 단위의 교회협의회를 자율적인 기구로 재구성
5. ‘평생회원제도’의 강화.
6. 은사기부제도를 통한 전문인들의 참여 유도
7. 부실한 재정상황과 부채를

극복의 과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총무가 제시하는 방안은 매우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이렇게 제시된 방안들을 우리의 지역과 목회현장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오늘의 발제를 통하여 위의 방안들을 구체화 할 수 있는 목회현장에서 고려되어 질 수 있는 요소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목회현장에서 진보와 보수의 틀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교회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목회 현장에서의 이에 대한 이해는 매우 부족하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 아젠다와 더불어 목회적

인 아젠다의 제시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 총무의 지적대로 “진보의 게토(ghetto)에서 벗어나 선한 영향력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증진”시켜 나가는 일이며 진보와 보수의 냉전 이데올로기적 대립 구도를 넘어 에큐메니칼한 교회의 본성을 추구하는 성숙한 교회로 발전하는 것이다.

예를 들자면, 지역교회 협의회를 중심으로 목회자 아카데미의 운영 등을 통하여 실제적인 목회실천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들의 개발이다. 성서일과에 의한 설교 아카데미는 가장 필수적인 과정일 것이다.

이와 더불어 각 지역 목회자들에 대한 계속 신학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기획 중의 하나일 것이다. 특히 각 지역의 연합기관들과 연계하여 목회자들을 위한 인문학과 연계한 질 좋은 신학교육을 통하여 지역목회자들의 에큐메니칼 운동에 긍정적인 이해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풀뿌리 지역 에큐메니칼 운동의 강화이다.

지역 에큐메니칼 운동의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지역교회 협의회가 창설되어져 왔던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다. 현재 전국 12개 지역에서 지역교회 협의회가 운영되고 있고 지역교회 협의체도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긴밀한 관계와 협력 속에서 활동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회 협의회 활성화의 위해서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 그것은 에큐메니칼 운동이 각 지역에서 지역 목회자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부분이다. 이 질문은 혹시 지역교회 협의회 또한 기존의 에큐메니칼 운동 관련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서 지역 목회자들 사이의 저변 확대가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물음이다.

결국 지역교회 협의회 활성화는 지역 목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얼마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지역의 중견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확산이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를 위해서 에큐메니칼 운동은 우선적으로 각 지역의 거점교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역교회의 참여와 협력은 절대적이다. 특히 가입교단의 인적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교회 협의회의 경우에는 각 지역의 중견 교

회와 증견 목회자들의 참여와 협력은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교회 협의회는 무엇보다도 지역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거점교회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나는 무엇보다도 일반 지역 목회자들과의 대화와 협력의 장을 만들기 위한 기획을 마련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다. 지금까지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주로 에큐메니칼 운동의 관련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대화는 지금까지 에큐메니칼 운동과 관련이 없거나 무관심 했던 목회자들과의 만남으로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강화와 지속 가능성은 어떻게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서 일반적인 목회자들과의 대화와 협력으로 나갈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일반적인 목회자들과의 만남과 대화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목회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회신학적인 개념으로 접근함으로써 가능해 질 것이다.

셋째, 목회자 중심의 기구적인 형태에서 일반 교인 지도자의 참여적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

에큐메니칼 운동은 전문적인 목회자와 일반 지도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엘리트 운동이라고 볼 수 있다. 과연 현장 교회의 교인 중에서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이해하고 또 그 안에서 적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을까?

이홍정 총무는 그의 글에서 에큐메니칼 운동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교회 협의회들과 협력하여 지역교회와 현장중심의 에큐메니칼 동행과정(Ecumenical Accompaniment Process)를 수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급선무하고 주장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지역교회의 참여가 없이는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평생회원제도”를 강화하여 개인적 혹은 개교회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 의견이다. 이러한 개인적 그리고 개 교회적인 참여는 은사기부제도를 통하여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광의적 차원에서 분야별로 전문성을 지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Consultant)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참여의 폭을 한층 넓힐 수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모든 제의는 일반 교인들의 참여의 부재는 결국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속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의식 속에서 출발하고 있다. 에큐메니칼 운동의 강화와 지속가능성의 여부는 이처럼 에큐메니칼 운동의 전문가 중심의 구도에서 벗어나서 일반 교우들의 참여 확대로 발전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교회 중심의 일치운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의(영적) 일치운동으로 나가야 한다.

예수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한다.

예수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믿음을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선전하는 모임이 아니다. 예수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하늘과 땅의 뜻이 완벽하게 일치되는 그런 영적인 교회다.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일치되는 그런 교회, 아니 사람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와 교인들을 꿈꿨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늘의 뜻을 아는 능력과 이 땅위에서 그 뜻을 펼쳐나가는 삶의 실천력이 아니겠는가. 이처럼 신앙은 하늘과 땅이 함께 부르는 노래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호흡을 맞추고 화음을 맞추어 나갈 때(일치를 이루어 갈 때) 이 땅위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힘차게 퍼져 나갈 것이다.

예수는 하나님에 대하여 완벽한 믿음을 가진 분이셨다. 그래서 그 분은 자신 있게 하늘의 뜻이 나의 뜻이고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셨다.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나를 보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늘과 땅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부르셨던 분이 예수였다.

영적생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함께 부르는 노래

영적인 생활은 무엇인가?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이 땅위의 뜻을 거기에 맞추어 나가는 생활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일치관계)를 맺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기

도생활과 하나님의 말씀 공부에 열심을 내야 한다. 그 밖에 여러 가지 모양의 영적인 훈련을 함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 질 수 있다. 친밀해지면 뜻이 통하게 된다.

오늘 한국교회는 하늘과 땅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잃어 버렸다. 하늘과는 상관없는 땅의 노래만을 부르고 있는지도 모른다. 불협화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다. 그러니 오늘 땅에서 매도 하늘에서 매지지 않고 땅에서 풀어도 하늘에서 풀리지 않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일이 반복되니까 사회적으로 공신력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진정한 교회의 영성적인 모습도 많이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는다. 부름을 받는다. 하늘과 땅이 함께 부르는 노래를 부르는 영적인 교회가 되라는 사명과 부름을 받는다. 진정한 미래의 일치는 하늘과 땅이 함께 부르는 노래, 목사와 교우들이 함께 부르는 노래, 교회와 사회가 함께 부르는 노래, 아름다운 노래로서의 교회를 만들어 감으로서 가증해 질 것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통하는 영적인 모습을 회복할 때 우리는 진정 예수가 원하는 교회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다.

나가면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 교회를 비롯한 기독교회는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탈지구적이며 탈제도적 경향을 보이는 오늘의 사회는 교회 없는 신앙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이런 시점에서 기독교 신앙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교회는 더욱 에큐메니칼 신학과 운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나는 결론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신학을 "이박자에서 삼박자 리듬으로" (not dualistic view but holistic view)의 신학이라고 제안한다. 그것은 삼위일체 신학이다. 삼위일체적 패러다임의 신학이다.

신학적 성찰과 신앙의 경험과 삶의 현장에서의 실천의 유기적인 연결을 이루어 낼 수 있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신학이야말로 미래를 향한 신학이다. 이론과 영성과 실천이 조화를 이루는 신학이다. 이것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강화시키며 지속가능한 운동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삼위일체 패러다임의 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위에서의 삶을 불박이의 삶에서 나그네의 삶으로의 변화를 요구할 것이다. 삼위일체 패러다임의 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윤리적 차원의 도전, 교리차원의 도전, 정치적 차원의 도전과 문화적 차원의 도전을 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도전들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묻도록 할 것이다.

예수는 양생(생명을 돌보다)의 메시지를 전파한다. 미래의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중심으로 살도록 우리의 삶의 지향점을 변화시키는 운동과 신학이 되어야 한다.

‘미래의 에큐메니칼 운동과 신학은 이 사회를 향하여 “더 나은 사회”의 대안적인 모델을 제시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그러할 때 진정한 의미에서의 미래시대에서 미래세대를 향한 온 신학의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지역 교회를 통한 에큐메니칼 운동의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부지런히 모색하고 이의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 MEMO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향한 우리의 과제

발제 및 토의에서 논의한 과제를 심화하고 공유하는 시간

■ 주제 : 에큐메니칼 운동의 지속가능성을 향하여

진행 - 김영철 목사 (본회 교회일치위원회 위원장)

• MEMO

• MEMO

• MEMO

전환시대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에큐메니칼 운동

이홍정 목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무)

1.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부름의 본질과 지향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협의회적 교회연합운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적 일치와 증언의 선교사역에 참여하도록 부름 받고 있다. 이 사역은 자기 비움과 상호의존성의 영성을 바탕으로 치유와 화해의 사역을 도모하므로 정의와 평화의 입 맞추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땅에 깃든 모든 생명체들이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하게 얻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변화된 시대 상황 속에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먼저 ‘불편한’ 과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예언자적 전승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구성원들 사이에 협의회적 친교를 회복하고 마음의 에큐메니즘을 증진시키는 일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여성과 남성, 평신도와 성직자, 청년, 지역, 소수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포괄적인 하나님의 백성공동체로 성숙해 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교회와 사회 안에 깊이 내재된 냉전의식의 기제들을 해체하고 복음의 온전성과 총체성을 증언하는 생명·정의·평화공동체로 갱신되고 변화되도록 한국교회 전반과의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고 선한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추구하는 협의회적 연합운동의 토대인 지역교회들과의 유기적 상관성을 조직적으로 강화하고 지역에큐메니즘을 활성화하므로 에큐메니칼하게 지속 가능한 지역교회성장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상관된 지역교회들을 중심으로 가칭, “화해교회운동”을 전개하여 하나님의 화해선교에 참여하므로 교회간, 종교간, 빈부간, 세대간, 남남간, 남북간 전인적 사회적 화해와 생태적 화해를 이루는 일을 도모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향하는 에큐메니칼 가치가 지역교회 구성원들의 삶과 사역을 지속적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평생회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에큐메니칼 사역이 지니는 지역적이며 동시에 세계적인 지평의 상관성을 강화하므로 지역상호간 협력을 통해 세계라는 마을을 섬기는 협의회로 성장해 나가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회원 교단들과 관계를 맺고 국내외에 편재된 에큐메니칼 역량들의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조직화하고 연대를 구축하는 전략을 발전시켜야 한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하여 현장중심의 글로벌한 에큐메니칼 지도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해 내실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일을 체계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분단과 냉전에 포로화된 민족공동체를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 국내외의 모든 선한 세력들과 평화적 연대를 구축하고 공동의 증언행동에 헌신해야 한다. 분단 모순으로 왜곡된 남한 자본주의 사회의 광기와 욕망이 표출하는 혐오와 배제의 언어들을 복음의 능력과 사랑으로 극복하고, 생명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받는 위협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며 연대하는 ‘성문 밖’ 선교를 실천해야 한다. 문명사적 전환을 요구 받고 있는 기후변화시대와 후쿠시마 이후 시대에 미래의 일곱 세대의 생명의 안전과 지구생명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생태 정의와 평화를 구현해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협의회적 연합운동을 매개하는 기구로서 지녀야 할 대표성, 전문성, 효율성, 운동성, 포괄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 융합과 분배의 전략을 유연성 있게 적용하므로 지속 가능한 기구로 쇄신되어야 한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100년에 대한 성찰과 새로운 100년에 관한 전망을 토대로 오늘의 한국교회와 사회를 갱신하고 변혁하는 일을 구상해야 한다.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의 비전과 사명과 목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이 같은 부름의 본질과 지향에 충실하면서 한국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정의와 평화를 지향하며 치유하고 화해하는 하나님의 생명선교공동체로 날마다 새롭게 변화 발전하는 비전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한다. 한반도와 전 지구생명공동체에서 전개되는 하나님의 목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하나님의 정치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과 진리를 따라 전 세계에 흩어진 지역교회들과 선한 이웃들과 더불어 상호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비전을 구체화 해야 한다. 교회의 에큐메니칼한 본성과 사역을 강화하고 에큐메니칼 협의회로서의 경영과 소통에 힘쓰며 에큐메니칼하게 지속 가능한 지역교회성장을 위한 대안적 시스템과 공동의 실천과정을 제시하고 이를 실천하는 비전을 구체화해야 한다.

우리는 이 같은 비전이 부여하는 사명의 실천을 구체화해야 한다. (1) 한국교회의 예배와 선교를 통전하고 상호의존성과 자기 비움의 영성을 고양한다. (2)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을 위한 협의회적 과정을 인내와 성실로 추구하므로 교회의 가시적 일치와 ‘값비싼’ 친교를 증진시키고 사회와 민족공동체의 통합에 기여한다. (3) 사회적 약자들과 함께 하는 한국교회의 공동의 증언과 에큐메니칼 디아코니아 사역을 증진시키므로 에큐메니칼한 교회의 메시아적 삶의 양식을 구현한다. (4) 한국교회가 지구생명공동체의 보전을 위해 생명의 망을 강화하는 사역을 증진시키므로 생명중심의 생태적 세계관으로의 문명사적 전환을 도모한다. (5) 한국교회가 냉전의식과 문화, 냉전적 근대성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체를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며 동(북)아시아와 세계교회가 함께 동참하는 한반도평화연대를 강화한다.

우리는 이 같은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의 목표와 과제를 명료하게 공유하고 구체화해야 한다. (1) 치유와 화해의 복음사역으로서 생명목회를 연구하고 선교적 교회와 지역마을목회를 지향하는 ‘풀 뿌리’ 지역에큐메니즘을 강화하고 실천하므로 에큐메니칼하게 지속 가능한 지역교회성장을 추구한다. (2) 복음의 총체성과 온전성을 증진하는 탈냉전적 신학과 영성, 통전적 실천적 교회사역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정의와 평화를 위한 증언 행동과 사회선교현장과의 연대를 통한 에큐메니칼 디아코니아 실천을 강화한다. (3) 교회의 가시적 일치와 평신도사역의 전문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신앙과 직제’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하며 이를 위해 특별히 평신도중심의 회원기관들 및 회원 교단 산하 평신도단체들과 협력한다. (4) 가정과 교회와 마을을 중심 축으로 교회사역의 전문성 담보를 위한 전문인력양성과 함께 어린이와 여성, 청소년, 소수자 등의 평등하고 풍성한 삶을 위한 사회선교목회와 교육훈련시스템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한다. (5) 한국교회 일반과의 수평적 의사소통과정을 강화하고 일치와 갱신을 위한 협의회적 과정을 통해 공동의 이해와 비전을 증진하며 회원 교단 및 기관들의 상호교류와 상호 배움의 과정을 활성화하고 확대한다. (6) 대화적, 상생적, 변혁적 기독교문화형성을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한 종교 간의 대화, 상생적 공존과 평화, 종교의 사회적 순기능을 강화한다. (7) 민족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사역에 대해 연구하고 실천하면서 국가별, 대륙별, 글로벌 차원의 교회협의체들과의 중층적 선교적 연대를 강화한다. (8) 한국사회 전반과의 내부적 의사소통을 증진하고 공감대형성을 위한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는 과정에 한국교회 안에 형성된 사회문제에 대한 냉전적 대결구도를 극복하기 위한 공감형성의 과정을 수립한다. (9) 회원 교단 및 기관들과 함께 지역상호간 생명망짜기를 통해 현지교회와 함께 하는 협의회적 세계선교운동을 전개한다. (10) 생명중심의 생태주의적 창조신앙으로 의식화된 녹

색교회공동체의 건설과 이를 위한 과제들을 연구하고 실천한다.

3.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 모색

3-1. 에큐메니칼 정체성과 협의회적 과정의 강화

교회의 에큐메니칼한 본성에 대한 깊은 자각과 성찰을 바탕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내에 협의회적 친교를 회복하고 협의회적 과정을 에큐메니칼 원리에 따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회원 교단 및 기관, 지역교회협의회들 사이의 친교와 상호 배움, 공동의 증언과 연대를 강화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의의 의사결정과정과 운영시스템을 재구성해야 한다.

- 1) 회원 교단 및 기관들 사이에 에큐메니칼 친교를 강화하므로 상호 배움을 통한 성장과 성숙, 협력과 연대의 길을 열어가며 제반 의사결정과정에서 협의회적 성격을 강화하는 공감의 의사결정방안을 개발하여 헌장과 제도에 반영한다.
- 2)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전체를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서서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므로 '진보의 게토(ghetto)'에서 벗어나 선한 영향력을 제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회의 가시적 일치를 증진시켜 나간다.
- 3) 기구적 차원의 한국교회연합운동의 효시인 192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창립을 기원으로 시작하는 한국교회연합운동의 가시적 일치를 위한 소통과정을 준비하고 한국교회가 진보와 보수의 냉전 이데올로기적 대립 구도를 넘어 에큐메니칼한 교회의 본성을 추구하는 성숙한 교회로 발전해 나가도록 인도한다.
-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업이 선택과 집중, 융합과 분배의 조화를 이루는 협의회적 사업이 되기 위해 연구와 개발과 공동의 증언과 행동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해 회원 교단 및 기관들이 진행하는 제반 사업을 공유하고 공동의 연합사업을 위한 토대를 강화하므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업이 회원 교단 및 기관들의 사업과 중첩되지 않고 조화를 이루어가도록 한다.
- 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업이 한국교회와 한국사회 전반과의 소통과정을 매개할 수 있도록 전문분야별 핵심 대화그룹과 회원 교단 및 기관 실무자 중심의 공동기획실무그룹을 구성하여 활동하고 홈페이지 및 SNS 활용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On-Off 상황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언론홍보제휴를 극대화한다.

3-2. 지속 가능성의 강화를 위한 방안

- 1) 에큐메니칼한 사회정치적 생명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공 교회와 공 기관

들의 협의체로서의 구조적 특성을 바탕으로 풀 뿌리 지역에큐메니즘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에큐메니칼 운동체로서의 내용과 조직을 재구성한다.

- 2) 지역에큐메니즘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전국 단위의 진보와 보수의 대표성을 표방하는 중앙기구들의 조직적 한계를 넘어선 지역 단위의 교회협의회를 자율적인 기구로 재구성하고 지역교회협의회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대표를 파송하여 제한 없이 활동하도록 하므로 지역과의 연대를 강화한다.
-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에큐메니칼 연대와 증언을 강화하기 위해 회원 교단 및 기관, 지역교회협의회들과 협력하여 지역교회와 현장중심의 에큐메니칼 동행과정(Ecumenical Accompaniment Process)를 수립하고 실천한다.
-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평생회원제도’를 강화하므로 개인 혹은 개 교회나 기관이 평생회원이 되어 에큐메니칼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5) 은사기부제도를 기본으로 광의적 차원에서 분야별로 전문성을 지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Consultant)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유산기증을 포함한 각종 재정기부제도를 활성화한다.
- 6) 정부 관련 부서나 준 정부기구들과의 예언자적 거리를 유지함과 동시에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가능한 분야에는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내용과 실천을 주도하는 한편, 재정의 합법적 조달도 모색한다.
- 7) 부실한 재정상황과 부채를 극복하기 위해 회원 교단 및 기관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재무회계 팀’과 함께 지도감사를 통한 경영쇄신을 모색하고 회원 교단 및 기관들과 합의된 공동해결방안을 실시한다.
- 8) 재무회계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전문가의 진단과 조언, 회원 교단 및 기관, 평생회원들의 공동협력을 통해 재정자립을 이룬다. 매 2년마다 회원 교단 및 기관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재무회계 팀을 통해 외부지도감사를 받고 재정자립화를 향시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수립한다. 주요 중장기 정책사업을 위한 재정 조달방안은 별도로 마련한다.
- 9) 회원 교단 및 기관의 재정지원을 명분으로 혹은 교파주의적 집단 이기심에 경도되어 진행된 ‘과도한’ 인사행정을 정비하고 정예의 전문성을 지닌 에큐메니칼 요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으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 섬기도록 인사체제를 근본적으로 정비한다.
- 10) 방만한 위원회들을 융합적으로 재구성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한 체계적 사업구조를 마련하므로 교단이 아닌 협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과 교단을 추동하며 협력사업으로 전개할 일들을 엄선하여 사업으로 재구성한다. 중장기정책사업의 경우 특별과정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4. 주요 과정과 프로그램

4-1. 새로운 100년을 위한 성찰과 개혁

1924년 창립 이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걸어온 길을 역사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성찰하면서 새로운 100년을 위한 일치와 갱신, 치유와 화해의 청사진을 준비하는 성찰과 변혁의 협회적 과정을 진행한다.

- 1) 가치 〈생명·정의·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칼 순례〉라는 협회적 과정을 수립하고 종교개혁 500주년을 통해 수립된 개혁과제들을 포함하여 실천한다.
- 2) 2018년 88선언 30주년, 2019년 3.1운동과 임시정부수립 100주년, 2020년 6.25 70주년과 미완의 해방 75년, 2023년 정전 70주년, 2024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창립 100주년, 2025년 미완의 해방 80주년을 맞는 일련의 역사적 과정을 전망하며 “민족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실천적 구상과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와 핵 없는 세상의 비전을 함께 담은 “카이로스 한반도 (Kairos Korean Peninsular)”를 선언하고 한반도에서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건설을 위한 과정을 구체화한다.
- 3) 2024년 창립 100주년에서 2025년 미완의 해방 80년을 맞는 시기에 “민족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핵심으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 기념사업을 기획하고 국내외 행사를 한반도에서 실시한다.
- 4)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년사(1924-2024)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100주년 기념 백서를 발간하고 에큐메니칼 아카이브를 개발한다.
- 5) 새로운 100년을 향해 가는 과정에 “천만상상운동”을 통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천토대교회와 일만평생회원을 세운다.

4-2. 〈생명·정의·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칼 순례 10년: 2018-2028〉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 증언과 봉사의 사역을 통해 생명·정의·평화를 위한 치유와 화해의 복음사역의 비전과 사명과 목표를 이루기 위해 회원 교단 및 기관, 지역협의회와 사회선교현장이 주축이 되어 한국교회와 사회, 세계교회와 더불어 진행되는 〈생명·정의·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칼 순례 10년〉 과정을 개발하고 실천한다.

- 1) 영적-수직적, 사회적-수평적, 생태적-우주적 차원이 총체적이고 온전하게 반영된 치유와 화해의 복음선교신학을 수립하고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 증언과 봉사를 위한 치유와 화해의 복음사역을 실천한다.

- 2) 핵심사업으로 “민족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위한 에큐메니칼 과정”을 수립하고 실천한다.
 - (1) 201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88선언 30주년을 기념하며 기독교통일운동을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새로운 대안들을 모색한다.
 - (2) 2019년 3.1운동 100주년과 2020년 6.25 70주년, 미완의 해방 75년을 새로운 계기로 삼아 “카이로스 한반도 (Kairos Korean Peninsular)”를 선언하고 과정을 출발한다.
 - (3) 2019년에는 “민족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을 주제로 종교간 대화와 공동의 실천을 위한 연대를 구축한다.
 - (4) 2024년 창립 100주년과 2025년 미완의 해방 80년을 정점으로 과정을 마감한다.
 - (5)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국제적 민간통일외교영역에서 세계교회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선도적 관계 맺기 역할을 감당하도록 한다.
 - (6) 한국교회를 위한 평화통일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지역교회협의회와 협력하여 실시하면서 ‘화해교회’운동을 국내외적으로 전개한다. 해외 주요 도시들에 위치한 한인교회들을 ‘화해교회’로 공인하고 이들을 중심으로 디아스포라 평화통일운동의 구심점들을 새롭게 구성한다.
 - (7) ‘식민’과 ‘분단’ 시기에 고통 당한 동포들의 치유와 화해 과정, 일제 하 위안부 및 강제 징용된 자, 한국전쟁 집단살해 피해자, 이산가족, 탈북민들의 치유와 화해 과정, 제주 4/3, 광주 5/18, 4/16 세월호 희생자들의 치유와 화해 과정을 구상하고 실천한다.
 - (8) 조선그리스도교연맹과 협력하여 민간차원에서 남북의 치유와 화해 과정을 진행하며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의 사회선교사역을 지원한다.
 - (9) 판문점 선언에 기초하여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동북아시아 평화공동체 형성을 위한 국제 포럼을 매 2년 정기적으로 한반도에서 개최한다.
- 3)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한반도의 제반 인권 상황과 민주주의의 내용을 성숙시킬 뿐만 아니라 지구 남반부, 특별히 아시아의 민주화와 인권운동을 지원한다.
- 4) 아시아기독교교회협의회와의 공동선교과제로 아시아의 현대화 및 세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명의 안전문제를 중심으로 치유와 화해의 복음사역을 연구하고 실천한다.
- 5) 생명과 정의와 평화를 위한 치유와 화해의 생명망짜기를 지역별, 국가별, 대륙별 차원에서 세계적 지평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시행한다. 특별히 아시아-아프리카

카-라틴아메리카 교회들의 치유와 화해의 복음사역을 위한 선교적 연대를 구축하고 공동과제를 실천하면서 한반도-팔레스타인 연대를 위한 에큐메니칼 동행 과정에 참여한다.

4-3. 교회와 사회 포럼 “공감 21 · 복음과 생명”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추구하는 비전과 사명과 목표를 위한 과제와 과정을 모색하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의 합의를 도출하며 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해 정기적, 부정기적 포럼을 구성한다. 회원 교단 및 기관의 기존 프로그램 영역을 토대로 재구성하므로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과 공감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 1) 치유와 화해의 생명목회개발부문
- 2) 예배와 선교의 통전, 상호의존성과 자기 비움의 영성 개발 부문
- 3) 한국교회의 일치와 갱신, 연합운동 활성화 부문
- 4) 공동의 증언과 에큐메니칼 디아코니아 증진 부문
- 5) 지구생명공동체의 생명 망 강화 부문
- 6) 민족공동체의 치유와 화해, 평화통일 실천 부문
- 7) 한국교회와 사회의 민주화와 평등과 인권 신장 부문
- 8) 평신도와 여성과 청년의 역할 증진 부문
- 9) 세계교회와의 연대 부문
- 10) 새로운 사회와 국가건설을 위한 대안 제시 부문

4-4. 한국 에큐메니칼 아카데미(Korean Ecumenical Academy) 구성

한국교회의 에큐메니칼 교육을 강화하고 국제적 에큐메니칼 지도력을 배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한국교회를 위한 교육훈련프로그램과 한국의 신학대학교에서 국제교육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공동교육프로그램으로 구성한다. 한국 에큐메니칼 아카데미 공동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 1) 한국교회를 위한 에큐메니칼 교육훈련 프로그램
 - (1) 1년 4학기 에큐메니칼 지도력훈련과정을 개발한다.
 - (2) 에큐메니즘의 역사적, 성서적, 신학적 기초와 한국교회 에큐메니칼 역사를 공동과정으로 개발한다.
 - (3) 신앙과 직제(Faith and Order), 선교와 전도(Mission and Evangelism), 에큐메니칼 디아코니아(Ecumenical Diakonia), 치유·화해·평화통일 (Healing,

Reconciliation and Peaceful Reunification)을 전공분야로 개발한다.

- (4) 경제와 생태(Economy and Ecology), 갈등해결과 평화(Conflict Resolution and Peace), 민주화와 인권(Democracy and Human Right), 여성주의(Feminism), 에큐메니칼하게 지속 가능한 지역교회성장; 지역마을목회(Ecumenically Sustainable Local Church Growth; Local 'Village' Ministry)를 전공관련분야로 개발한다.
- (5) 매년 1회 교육훈련생들을 대상으로 캄보디아 에큐메니칼 디아코니아 센터에서 에큐메니칼 제자도 훈련프로그램(Global Inter-local Ecumenical Discipleship Training Course)를 실시한다.

2) 국제신학교육 공동프로그램

- (1) 수도권에 있는 장신대, 감신대, 한신대 등에서 진행되는 외국인신학교육프로그램과 협력하여 공동커리큘럼을 개발한다.
- (2) 수도권 주간 프로그램으로 한 학기에 3개의 공동세미나과목(Common Module)을 개발하고 일주일에 하루 한 학교에 모여 서로 다른 과목에 참여한다. 학기 별로 모이는 학교를 달리한다.
- (3) 학기말 프로그램으로 마지막 시간을 공동세미나로 진행한 후 종강친교시간을 통해 에큐메니칼 친교와 연대를 증진한다.
- (4) 전국 프로그램으로 국제신학교육프로그램을 가진 학교 전체를 대상으로 춘계공동세미나와 하계 에큐메니칼 신학캠프와 추계 에큐메니칼 친교 모임 등을 진행한다. 이 때 <한국 에큐메니칼 아카데미>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인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격려한다.

4-5. 에큐메니칼 선교현장지원과 연대 강화

풀 뿌리 에큐메니칼 운동의 토대인 에큐메니칼 사회선교현장들을 개발하고 활성화하며 현장들 사이에 상호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협의회적 보완장치들을 설치하여 지원하고 지역교회들과 사회선교현장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1) 회원교단과 협력하여 에큐메니칼 현장선교사제도를 체계화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회선교현장을 개발하여 지역교회와 함께 지원한다.
- 2) 사회선교현장을 섬기는 기구 및 기관들과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회적 과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1) 회원기관인 YMCA, YWCA, 한국기독교학생총연맹, 기독교방송, 기독교서회와 공동의 협력을 위한 토대를 강화한다.
 - (2) 한국기독교사회봉사회,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한국기독교

교사문제연구원 등 유관기관들과의 협력사업을 강화한다.

- (3) 회원교단과 회원교단 내 인사들이 참여하는 사회선교단체들과의 연대행동을 강화하고 이를 지원한다.
- (4) 상기 협력단체들이 참여하는 에큐메니칼 사회선교협의회를 재구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원한다.

3) 에큐메니칼 사회선교현장들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 혹은 준 정부 기구들, 올바른 기업들, 해외선교기구들의 지원협력을 매개하고 이를 관리한다.

4-6. 세계 에큐메니칼 기구들과의 협력사업 강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지닌 세계를 향한 한국교회의 공식 창구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국가별, 대륙별 에큐메니칼 협의회들과 초 교파 혹은 교파 단위의 세계적 차원의 협의회들과의 소통을 강화하며 상호연대사업, 특별히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연대의 망을 확장하고 심화한다.

- 1) 국가별, 대륙별, 세계 에큐메니칼 기구들과 함께 에큐메니칼 운동을 재고(Rethinking)하고, 재구성(Reforming)하고, 재활성화(Revitalizing)하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마련한다.
- 2) 세계 에큐메니칼 협의회들과 선교기구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선교의 과제를 자신들의 핵심사역의 하나로 선택하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협력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3) 국가별 기독교교회협의회들과의 친교와 연대를 강화하며, 특별히 <생명·정의·평화를 위한 에큐메니칼 선교와 순례 10년>이 관심하는 국가들의 협의회들과 연대를 강화한다.
- 4)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 기독교교회협의회들과의 교류를 통해 한국교회의 지구 남반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상호 배움과 에큐메니칼 지도력을 증진시키고 세상을 향한 치유와 화해의 청사진을 구체화 한다.

5. 에큐메니칼하게 산다는 것의 의미: 존재의 증언

5-1. 선교적 교회

21세기, 생명의 세기에 생명의 구원과 해방을 위해 복무하도록 부름 받은 교회는 십자가 아래에서 수난 당하는 모성성과 부활의 생명력으로 충만한 선교적 교회

로 거듭나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하나님을 떠나 사는 인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있는 자신을 새롭게 자각하고 하나님께 귀의하도록 초대하는 고향과 같은 교회이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경계선에 서서 "이미"와 "아직" 사이의 창조적 긴장을 유지하며 길 위의 순례자로 "지금 여기," 역사내재적 종말론적 정체성을 강화하는 교회이다.

선교적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온전한 일치를 이루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통전하는 성례전적 친교공동체로 자신의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선물인 일치의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교회이다. 서로 다른 역사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지역교회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의 사건이 가져온 ‘값비싼 친교’(costly koinonia)에 참여하는 에큐메니칼 헌신을 위해 창조적이고 책임적이며 상호비판적인 상관성 앞에 자신들을 개방해야 한다. 지역적 상황을 지구적 현실에 연결시키려는 노력과 함께 지구적 현실이 지역적 상황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 모든 지역의 현실 속에서 공동의 증언을 위한 선교와 복음전도의 사명을 상호지원하고 인간과 자연의 고난에 봉사하기 위한 생명디아코니아(Diakonia for Life) 사역에 참여해야 한다.

선교적 교회는 생명과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증언하는 구도적 공동체로서 십자가 아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순례적이며 동시에 순교적인 케노시스(kenosis 자기 비움)의 선교를 지향한다. 선교는 구도적 순례의 여정 속에 구현되는 교회공동체의 전인적인 자기정체성의 표현이다. 선교는 구도의 길 위에 선 순례자의 삶처럼, 십자가 아래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바람처럼, 꽃의 향기처럼 부활의 생명력으로 생명과 소망의 하나님을 증언하는 사랑과 진리의 실천이요, 의와 화평의 입맞춤이며, 치유와 화해의 과정이다. 이것은 자기 비움에 근거한 상호의존성을 토대로 자발적 가난과 단순한 삶과 수난 당하는 사랑을 실천하는 순교적 증언을 포함한다.

5-2. 에큐메니칼하게 지속 가능한 지역교회 성장: 지역 에큐메니즘

한국교회는 지속 가능한 지역교회성장을 위한 “생존의 사슬” 위기라는 긴급구조 요청을 받고 있다. 한국교회의 성장과정에서 교단과 선교회를 중심으로 동시다발로 일방적으로 확대된 세계선교 역시 이미 그 지속가능성에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해석학적 실천적 차원, 즉 “복음의 (재)발견, 복음의 삶, 복음의 확산”의 순환을 삶 속에 내재하고 있다. 이것은 심층적 상호연관성을 지닌 지속 가능한 지역교회성장의 순환의 삼박자로

개 교회중심의 양적 성장을 위한 전략과 방법과 프로그램에 집착해 왔던 이제까지의 교회성장론의 패러다임을 복음이 지닌 생명력과 생태적 운동성, 총체성과 온전성이라는 신앙의 존재론적 양태로 변화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 교회성장은 시대적 상황과의 깊은 상관성 속에서 진행된다.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른 교회의 복음적 사회적 응답이 교회성장환경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성장의 기회와 함께 한계도 노출시킨다. 1960년 대 이후 분단 상황 속에서 남한사회의 자본주의가 도시화, 산업화, 민주화의 과정을 겪어 나갈 때 기복적 영성에 뿌리내린 번영과 안전의 신학이 교회성장을 주도했다. 독점과 사유화의 방식이 개 교회중심주의, 교파경쟁주의, 성직교권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등으로 나타났다. 21 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에 물질적 부가 축적되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립되면서 세속화, 다원화, 지구화가 개인과 시민사회의 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이 확대되었고 급기야 한국교회는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제 저성장 인구절벽시대에 세속화된 시민의식과 문화가치체계가 시민종교 혹은 대체종교의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하면서 20세기 방식의 한국교회의 성장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독점과 사유화의 패러다임을 자기 비움(kenosis)와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y)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 지역 에큐메니즘을 활성화하지 않으면 공멸의 길을 갈 수 밖에 없다.

오늘 한국교회의 성장환경에 드리워진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바로 한국교회의 존재양태가 소금처럼, 빛처럼, 바람처럼, 꽃의 향기처럼 선전선동(프로파간다 propaganda)를 넘어서는 복음의 존재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는데 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세상에 오신 임마누엘 성육신 사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바른 길이 “케노시스”요, 교회공동체의 존재론적 양태가 바로 “케노시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수난과 죽음과 부활의 첫 형상화인 ‘빈 무덤’은 영원한 생명력은 자기 비움의 과정을 관통한 ‘텅 빈 충만’을 통해서 비로소 증거된다는 의미를 역사적으로 형상화한 것인지도 모른다.

이제 한국교회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재고하며 다음 세대, 청년세대, 장년세대, 노년세대에 따른 세대별 성장전략과 정책을 개발하고 지도자 영성 훈련을 더하여 균형성장과 동반성장, 그러므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가야 한다. 이는 교회 내외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교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와 한국사회의 인구학적 변화가 가져오는 한국교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절체절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몸부림이다. 성장의 심박동이 멈추고 이를 인지하지도 못한 채 뇌사상태로 빠져가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행하는 심폐소생술에 해당하는 응급행위이다. 성공적인

소생을 위한 “생존의 사슬”은 심폐활동정지 상태를 조속히 인지하고 구조를 요청하는 한편, 인공호흡과 인공순환 등의 기본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심방(심실)세동을 정상조율로 되돌리는 제세동 등의 전문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인데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사슬처럼 신속하고 정확하게 서로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같은 “생존의 사슬” 엮기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케노시스”의 영성이 펼쳐내는 생명살림의 예술이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케노시스”를 살아내는 존재이다. 한국교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운동이 한국교회의 생명력을 소생시키는 “생존의 사슬”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성장운동의 과정과 방법론이, 특별히 이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지도자들이 케노시스적이어야 한다. 그러할 때 교회성장운동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생존의 사슬”을 엮는 생명살림의 예술로 승화될 수 있다. 생명체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생명운동은 일상의 삶의 호흡운동이요 신진대사운동으로 모세혈관에 이르기까지 산소가 공급되고 피 돌기가 이어지는 순환운동이다. 이 같은 순환운동의 일상성이 가져올 수 있는 안일함과 순환을 저해하는 독점과 사유화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비워내며 생존의 사슬을 엮어가는 것이 생명살림의 예술이다. ‘텅 빈 충만’을 선물로 가져오는 케노시스적 교회성장운동은 무엇일까? 케노시스적으로 교회성장운동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케노시스를 지향하는 교회성장운동은 어떤 존재론적 양태와 전략을 가지고 전개되어야 할까? 한국교회의 성장운동이 지속적으로 물어야 할 매우 본질적인 질문이다.

자기 비움과 상호의존성이라는 생명의 망의 세계관이 붕괴되고 독점과 사유화에 기반한 신 자유주의 시장경제체제가 세계화된 시대적 경향이 한국교회의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극복하고 자기 비움과 상호의존성에 근거한 에큐메니칼하게 지속 가능한 지역교회성장에 대한 비전을 회복해야 한다. 자연의 순환이 지시하는 교회생태계의 정의는 독점과 사유화가 아니라 상호의존과 나눔을 동반하는 순환이며, 이것이 교회생태계의 지속가능성을 제공하는 원리이다. 교회생태계의 지속가능성 역시 개 교회나 특정 교단이나 기관 혹은 그룹 중심의 집단적 독점과 사유화가 아니라 자기 비움과 상호의존성이라는 생태적 원리에 근거한 “더불어, 함께”라는 공동체적 순환의 정의를 세울 때 가능하다. 이를 통해 비로소 지역에큐메니즘의 꽃을 피울 수 있다.

5-3. 나르시시즘을 극복한 지도력

케노시스를 지향하는 교회성장운동이 극복해야 할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한국교회지도자들 속에 만연된 '나르시시즘'이다. 자아도취적 자기애는 인간의 부정성이 지니는 심리적 문제로 완벽주의에 경도된 채 자만심과 우월감에 빠져 자기에게서 시작과 끝을 이루는 직선적 완결구조를 형성하려는 태도를 포함한다. 자신의 불완전함에 대해 무지하므로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우월하다는 하나님의 판단을 인정할 수 없었던 사탄의 본성은 인간의 악한 심성과 행위의 근원이 된다. 나르시시즘적 인간은 자신의 완벽한 자아상 표출에 문제가 발생하면 자기성찰 대신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애매한 희생양을 만들어 이를 극복하려 하는데, 이런 악순환의 과정이 반복되면서 인간의 최악 된 문화는 번성해간다.

한국교회 안에 내재된 유교적 가부장적 문화는 권위에 대한 무조건적 의존과 복종, 수평적 소통과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의 부족, 억압적 감정 절제 등을 조장하기 쉬운데,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지도자들 안에 있는 나르시시즘은 병리적 현상으로 발전되어 표출되기 쉽다. 가부장적 나르시시즘적 교회지도자들이 하나님과 교회를 명분으로 공적 영역에서 자기성취와 자기과시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과정에서 그들의 나르시시즘을 보호하기 위한 비본질적 안전장치들이 설치되고 구성원들은 반 지성주의에 경도된 채 복종적 참여를 강요 받는다. 간혹 몇 몇 자수성가 형 교회지도자들의 경우, 내면 깊숙이 자리 잡은 독점과 사유화의 욕구로 인해 왕왕 자신들을 교회와 기관의 소유주로 생각하고 주변에 유사 '친위대'를 배치하여 운영권을 독점하므로 집단적 지성의 창출과 지도력 이양에 어려움을 자초하며 '세습'의 길을 선택한다. 자기 의와 자기연민을 시계추처럼 오가며 성직자의 특권의식과 영적 권위로 자신들을 포장한 채 구성원들을 자신들의 욕구 실현의 도구로 전략시키고 신앙공동체 안에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는 세속화 현상을 가속화시키며 고뇌하는 신앙인들의 이탈을 방지한다. 한국교회의 성장둔화와 윤리적 타락과 사회적 신뢰약화의 뒀안길에는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교회지도자들의 나르시시즘적 병리현상이 함께 자리 잡고 있다.

나르시시즘을 양산하는 한국교회의 문화와 목회구조의 사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성육신적이며 생태적인 자기 비움과 상호의존성의 영성의 빛 아래 스스로를 성찰할 수 있는 영적 능력을 개발해야 한다. 내 안의 완결구조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모든 구성원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제왕적 대상화의 망상에서 깨어나 구성원들의 공동체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은사를 개발하면서 집단지혜를 발전시키는 유기적이고 공동체적인 목회의 돌봄이 필요하다. 교회와 사회의 구성원들을

향해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지도하고 가르치려는 태도와 신앙의 이름 아래로 모든 것을 환원시키려는 미망에서 벗어나 더불어 소통하고 공감하므로 함께 배우고 실천하며 성장하는 모습으로 전환해야 한다.

목회기술자가 아니라 인생이라는 순례의 여정에 친구로 동행하는 지도자, 일방적 지시와 전달보다는 낮은 자세의 경청과 수평적 대화를 통해 영적 현자로 말씀의 지혜를 나누는 지도자, 자신이 세운 목표와 결정을 중시한 나머지 기존의 다른 것들은 무효화하고 자신의 시간의 흐름과 목표에 추종할 것을 강요하는 대신에 구성원들의 삶과 사역의 자리에서 공존의 상관성을 만들고 치유와 화해의 생명의 망을 짜가며 함께 춤추며 이끄는 지도자, 경력과 인맥과 덧칠한 무용담을 과시하며 그것을 권위의 근거로 삼기보다는 언제나 수줍은 첫 만남을 준비하는 아마추어의 자세로 일상을 살아가는 지도자, 성령의 역사보다 앞서서 문제해결사로 스스로를 자처하며 나서기 보다는 성령의 역사에 공동의 탐구자로 참여하는 지도자, 성급한 자기 판단을 앞세워 자기 방어적 변증과 공격적 처세로 대처하기 보다는 침묵 가운데 사과와 용서로 낮아지며 갈등의 사이에 서서 치유와 화해의 과정을 모색하므로 공동체의 진보를 이루는 포용적 지도자, 독무대를 차리고 나르시스적 윌 맨 쇼를 연출하기 보다는 팀워크를 이루며 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지도자 -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공동체의 전 구성원이 하나님의 정치와 선교와 목회에 참여할 것을 요청 받는 이 시대의 교회지도자들의 상식이 되어야 하며 이것이 지속 가능한 한국교회성장을 인도하는 첩경이 될 것이다.

5-4. 오늘 한국교회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는가?

오늘 한국교회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는가? 오늘 이웃과 자연이 경험하는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절망과 죽음에 상관되지 않은 나의 부와 건강과 자유와 희망과 생명은 없다. 이들 사이에 존재하는 사회적 생태적 상관성을 보지 못하는 것 자체가 영적 무지요 불의이며 죄악이다. 예수그리스도의 자발적 가난과 고통과 절망과 죽음이 왜, 어떻게, 나의 풍요와 기쁨과 희망과 생명으로 전환되는지에 대한 성만찬적 사회선교적 해석은 오늘 1대 99의 불평등한 세상에서 과연 한국교회가 지닌 부와 건강과 자유와 희망과 생명에 대한 신학적 실천적 진정성이 무엇인지를 되묻고 있다. 만물의 생명의 풍성함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과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의 역사적 현존은 오늘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억압당하는 사람, 절망하는 사람,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삶과 본질적 상관성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신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사역의 구성적 계기가 되는 이들의 존재가 치유와 화해의 생명공동체로서의 교회와 생명

과 소망의 성례전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선교사역의 진정성을 보증하는 동시에 시험하고 있다.

오늘 한국교회는 십자가 아래에서 중단 없는 자기 비움의 길을 걸으며,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같으나 진리 안에서 진정으로 산 자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절망과 죽임의 세력이 그어놓은 모든 단절의 경계를 넘어 생명과 소망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사랑과 진리로 증언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은 절망과 죽임의 경계들이 만들어 놓은 소외와 허무의 시공들 사이를 희망의 다리로 이어가는 진리의 소통과정이고, 부서지고 깨어진 관계들을 복원하기 위해 생명의 망을 짜는 치유와 화해의 과정이다.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라는 질문은 ‘오늘 나는 무엇을 위해 죽는가’라는 질문을 통해서만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순례적이며 순교적인 질문이다. 오늘의 역사적 의미 속에서 오늘 한국교회는 치유와 화해의 생명의 망을 회복하고 만물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생명살림에 대한 소망을 믿음으로 재확인하고 그 믿음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십자가 아래에서 부활을 살아가는 선교적 교회의 모습이다.